

진도 전복, 친환경 ASC 국제 인증 받았다

군내면 전복 양식업 일원, 적조 발생 피해 없는 청정지역 대·내외적으로 친환경 수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예상

진도 전복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국제 인증을 받았다.

ASC 인증은 환경관리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까지 보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진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심사 등을 진행해 결실을 얻었다.

군은 전복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국제 인증으로 가격하락, 소비계층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과 일본 등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복 ASC 인증을 받은 진도군 군내면 전복 양식업 일원은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식장이 적어 바다가 깨끗하고, 냉수대가 흘러 적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수출단지 목적으로 조성된 전복심영어조합법인은 71여개로 구성되어 연간 2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진도군 전복양식단지 중 하나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전복 ASC 국제 인증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진도 전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인증을 계속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SC 인증은 지난 2010년 WWF(세계자연기금)와 IDH(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가 공동으로 설립한 제도로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군 "땅끝 마을에 공동육아방 열렸네"

해남 땅끝의 섬마을에 공동육아방이 열렸다. 해남군은 21일 송지면 어불도에 어불마을 공동육아방을 개소했다.

어불도는 땅끝마을 송지면의 14개 섬 중 유일한 유인도로, 109세대, 232명이 거주하는 해남에서 가장 큰 섬이다.

육지와 배로 5분 거리로, 아이들은 도선을 이용해서 육지 내 초등학교를 다닌다. 특히 만3-5세 어린이는 어불도 안에 있는 어린이초분교 유치원을 다니지만, 3세 미만 유아 대상 어린이집이 없어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불도내 취학 전 영유아는 19세대 33명에 이르고 있다.

공동육아방은 지난 2020년 '이동군수실 현장특목'을 통해 주민 건의된 사항을 전격 수용, 군비 1억 1,700만원을 투입해 유희공간인 경로당을 리모델링 했다.

77㎡의 작은 공간이지만 유아방, 중간방, 초등방 등 연령대에 맞춘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장난감과 책 등 비품, 주방가전·가구도 갖췄다. 어불도 부모님들이 직접 품앗이 육아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을 함께한 명현관 군수는 "어불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시설인 만큼 따뜻한 공동체 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첫 입국... '어가 인력난 해소'

완도군은 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필리핀 팔라주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28일 6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첫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실시하며, 관내 격리 시설에서 하루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근로 조건 등 교육을 받고 관내 36개 어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 분야에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첫 입국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어가 인력난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일상회복 나들이 인파 '복적'



첫 주말인 24일 1000명 넘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리고 장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는 봄나들이 인파가 늘고 있다.

장흥군은 주말 하루 평균 500여명을 기록하던 우드랜드 방문객 수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봄날씨를 즐기며 편백숲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에서도 지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인 장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볼거리 만들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책로에는 맥문동, 꽃무릇 등 초화류 14

만분을 식재했다.

말레길은 오앤스텐 작업과 데크보관을 마치고, 생태건축체험장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생태건축체험장 21실은 우드랜드 홈페이지(www.jhwoodland.co.kr)를 통해 시설별 수용인원에 따라 사전예약을 하여 숙박할 수 있다. 편백소금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1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매표소에서 소금집까지 셔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관 조성을 통해 우드랜드를 더욱 화사하게 가꿔 나갈 것"이라며, "우드랜드를 방문하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장흥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지원사업' 선정 '장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 조성 예정...총사업비 20억원 확보

장흥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023년까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장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장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내 울대 건물을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중심의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장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에는 씨앗, 새싹, 나무, 숲의 산림을 주제로 아동의 인지발달을 위한 과학교구체험이 가능한 '숲 속 실험실 존', 아동의 신체발달을 위한 과학놀이체험 '숲 속 놀이터 존'이 들어선다.

초등 교과과정을 반영한 생태과학 인터랙티브 체험이 가능한 '숲 속 친구들 존', 천문과학을 활용한 감성 자극 '숲 속 밤하늘 존' 상설전시관, 야외 휴게공간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생태와 산림과학을 체득하기 위해 야외에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산림 연계프로그램, 어린이 숲 도슨트(숲 해설가) 교육프로그램, 목공예체험 등 어린이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숲마루는 숲과 한옥 대청마루의 순우리말 합성어로 아이들이 숲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숲마루 이름처럼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과학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드랜드 일원에 조성될 농촌테마공원과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천문과학관 등의 시설과 함께 교육·문화테마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 이동친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